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로서의 일반은총에 대한 고찰

김 경 준*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로 제시됐던 일반계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은총 교리를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 있다. 통합론자들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명제를 근간으로 일반계시 영역인 심리학 연구가 하나님의 진리와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을 통합의 근거로 삼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일반계시의 원래 목적이 창조된 세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후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정당하지 못함을 논증하였다. 또한, 일반계시에 다른 학문의 발견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일반계시의 해석학적 분석으로 그 부당함이 드러남을 지적하였다. 일반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간단히 정의될 수 있으며 성경적인 여러 증거를 가진다. 일반은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인간들 안에 이성과 이해력을 보편적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학문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말한다. 신학도 일반은총의 도움으로 발전되며 또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일반은총에 대한 Calvin, Bavinck, Kuypers의 진술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은총이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로 적합함을 논증하였다.

주제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일반계시, 특별계시, 일반은총,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 논문 투고일: 2018년 9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10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0월 31일

* 윌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I. 여는 글

근대 심리학이 태동한 이후 기독교계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목회상담학자들의 적극적인 심리학의 수용과 선교와 영혼 구원에 주력함으로 말미암아 심리학과 같은 주류 학문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복음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Johnson, 2012). 그러다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서의 통합(Integration)이라는 단어는 심리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Fritz Kunkel에 의해 1953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였다. 독일에서 태어난 Kunkel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1940년대에 미국 Los Angeles의 First Congregational Church에 기독교 상담센터를 설립하였으며, 1952년에는 종교 심리학 진보를 위한 재단 (th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Religious Psychology)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는 1953년에 William Rickel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사역을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the Integration of Christianity and Psychology)”이라고 하였는데 1953년 목회 심리학 (Pastoral Psychology) 저널의 편집자가 Kunkel의 약력을 기재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후에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Gordon Allport가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Vande Kemp, 1996). 한편, 복음주의적 기독교계에서는 비로소 1950년대에 심리학적 연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54년과 55년에 개혁주의적 신학을 가진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콘퍼런스를 열어 기독교 신학과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CAPS(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가 조직되었다. 그 후에 1960년에 들어서면서 풀러 신학교에 심리대학원(School of Psychology)이 생겨났으며 몇 년 후에는 Clyde M. Narramore와 그

의 조카 Bruce Narramore가 로즈미드 심리 대학원(Rosemead School of Psychology)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Johnson, 2012).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활발해져 Gary Collins가 1978년에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그의 통합 이론에 대한 연설을 하였으며 그 내용이 1981년에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전망(*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기에 이르렀다(Collins & Malony, 1992). 또한, 1979년에는 John D. Carter와 Bruce Narramore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Carter와 Narramore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4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진리나 심리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둘이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독교인은 성경적인 규범들(imperatives)을 통해 사람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명령에 나타난 것과 같이 창조에 나타난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스려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신학과 심리학 모두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서로 도전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심리학은 신학이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인간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상담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Carter & Narramore, 1979). Carter와 Narramore가 제시한 진리의 통일성이라는 근거는 위의 Collins가 풀러 신학교에서 한 연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성경에 계시된 진리와 심리학자들과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진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갈등이나 모순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All truth is God’s truth)라고 하는 명제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신학적으로 일반계시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

리라는 것이다(Babler, Penley, & Bizell, 2007).

그러나, 이러한 인간에 의해 발견된 진리를 일반계시로서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여러 성경적 상담학자들과 몇몇 통합론자들의 반론이 존재하며 그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를 일반계시에서 찾으려 하는 노력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Calvin, Kuyper, Bavinck 등의 신학자들을 통해 드러난 일반은총의 내용을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일반계시에 기초한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

조직신학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들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하며 두 가지 기본적인 분류, 즉 특별계시와 일반계시가 있다고 한다(Erickson, 1995). Demarest와 Lewis(1987:61)는 일반계시에 대하여 “자연과 섭리적 역사,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법칙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모든 인간들이 창조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도덕적인 요구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Erickson(1995:175-176)은 일반계시를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일반계시는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내적 존재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현시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한편, Passantino와 Passantino(2009)는 하나님, 우리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과 물질 세계, 역사 또는 도덕적 양심을 통해 나타나는 일반계시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특별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험과 연구와 조사를 통해, 관찰과 묵상을 통해 얻은 통찰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계시를 통해서라는 것이다(Collins, 2007).

Carter와 Narramore(1979:49)는 일반계시의 유용성에 대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결과적으로 심리학의 모든 진리들은 신적인 계시의 진리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사실, 그것들은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전체로 통합되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uy(2007:38)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위해 연구해온 Collins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노력을 종합하며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인간의 본성과 그 존재에 관한 진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진리의 원천이며 그 진리는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통해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원천이시나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며 또한 그 진리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작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Guy는 심리학과 신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활동을 통하여 자연과학과 성경의 계시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라고 하며 일반계시는 심리학과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려는 연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하나의 진리에 대한 원천이라고 기술하였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를 통해 드러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같등이나 모순이 없으며, 심리학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를 드러내는 일반계시의 영역이므로 신학과 심리학 통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추구하는 여러 학자의 공통된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여러 학자는 이러한 일반계시에 근거한 통합의 원리는 일반계시의 교리를 잘못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Babler, Penley, & Bizell, 2007; McMinn & Campbell, 2007; Stephens, n.d.; Thomas, 1998).

2. 통합의 근거로서 일반계시에 대한 반대주장

일반계시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아마도 로마서 1장 19-20절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19-20).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과 인간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드러내신다고 해석을 하지만, 일반계시가 통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반계시는 단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20절)에만 제한되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가리킬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해해야 할 것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내지는 못한다(Babler, Penley, & Bizell, 2007).

또한,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려 노력하는 학자로 잘 알려진 McMinn과 Campbell(2007)도 통합에 있어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원천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경구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를 만드는 것이나 폐렴균을 다루는 일과 같은 성격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들에는 일반계시가 더 권위가 있으나, 영적인 열망, 용서, 회개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는 일반계시보다는 특별계시에 더욱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일반계시를 통해 얻은 창조물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경적 상담학자인 Samuel Stephens도 역시 일반계시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코 실증적인 연구와 발견과 같은 것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들을 위한 계획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결국은 일반계시가 특별계시에 굴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Stephens, n.d.).

한편, 매스터즈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Thomas(1998)는 일반계시에 다른 학문의 발견을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4가지의 해석학적인 이유를 들어 이의 부당함을 논증하였다. 첫째는, 일반계시의 “일반”이라는 용어가 원래의 더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일반계시의 의미, 즉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계시(Erickson, 1995)와 상충하다는 것이다. 그는 Erickson(1995)의 정의에 따라 일반계시로 분류될 만한 특정 자료들은 모든 시대가 아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으며, 특정한 일부의 학자들에 의해서만 밝혀지고 있고, 또 현재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천문학적 발견의 경우 지구에 살았던 수많은 세대가 지난 후에야 겨우 밝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은 일반계시로서는 부적합하게 된다.

둘째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일반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시편 19편 1-6절에서는 창조의 질서가 하나

님의 내적인 속성과 같은 신적인 영광을 증언해주고 있으며 어떤 시대, 어떤 언어,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나타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는 것을 증언함으로 일반계시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국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일반계시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들에 관한 다양한 측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이외에 인간들의 속성에 대한 정보나 이론을 일반계시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롬 1:19-21; 행 14:15,17; 행 17:24-28).

셋째는,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일반계시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롬 1:18 절에 보면 일반계시의 발견들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는, 일반계시가 어떻게 접근되는가이다. 일반계시는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지닌 진리이다. 즉, 그것은 어떤 사람이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종류의 지식이 아니라 모든 이성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지는 그런 진리(Bookman, 1994)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계시를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위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성경적 상담학자인 Stephens 및 McMinn과 Campbell과 같은 통합주의자, 그리고 신약학자인 Thomas 교수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의 근거로 일반계시를 주장했던 학자들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일반계시를 통합의 근거로 삼으려고 시도했던 Passantino와 Passantino(2009)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발전되었던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을 일반계시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학자들에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그렇다면,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로 일반계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 더욱 우세한 견해임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본 논고에서는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로서 일반은총의 교리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신학과 심리학 통합 근거로서의 일반은총

1) 일반은총의 개념

일반은총이란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암묵적으로 이 일반은총의 개념이 엄연히 존재한다(Daalen, 2012). 역사적으로 일반은총이란 용어를 더욱 분명히 사용한 인물은 John Calvi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alvin도 일반은총이라는 용어를 확정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는 Calvin이 일반(common)이란 형용사를 은총(grace) 앞에 사용된 경우는 단지 4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회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Kuiper, 2007). Berkhof(1932)는 일반은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일반은총은 파괴적인 죄의 힘을 억제하고, 다소 얼마간 우주의 도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 질서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며, 인간들 사이에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분배해주고,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인간 자손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여주는 것이다(Berkhof, 1932:434).

한편, 한국에 일반은총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박윤선 목사에 의해서이다. 그는 처음에는 보통은혜라고 부르다가 후에 일반은총으로 사용하였다(박태현, 2014 재인용). 송인규(2007:119)는 일반은총을 “하나님께서 택자나 비택자를 막론하고 인류 일반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또는 은총”이라고 정의하였다.

2) 일반은총의 내용

Calvin이 역사적으로 처음 일반은총을 드러내놓고 사용하였다면 Abraham Kuyper는 일반은총의 교리를 폭넓게 체계화한 인물이다. Kuyper는 1895년부터 약 6년에 걸쳐 기독교 주간지에 일반은총 교리에 대한 해설 칼럼을 기고하였는데 그 후 1902년부터 1905년에 연재된 내용을 모아 총 3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박태현, 2014). 한편, 일반은총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 위해서는 1924년에 미시간주 칼라마주(Kalamazoo, Michigan)에서 열렸던 미국의 기독교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CRC)의 총회에서 오래 논의 끝에 채택된 일반은총에 대한 세 가지 요점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요점: 택한 자들뿐 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태도를 다루는 첫 번째 요점과 관련하여, 총회는 성경과 신앙고백서들에 따라 영생에 관하여 오직 택한 자들에게 나타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별도로 또한 일반적으로 그의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호의나 은총이 있음이 확립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복음의 제안을 다루는 인용된 성경 구절들과 도르트 신조 II:5와 III-IV:8, 9로부터 분명히 드러나며 이것은 또한 우리의 개혁주의 사상가들이 과거에 이러한 견해에 찬성했던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번성했을 때 만들어진 여러 인용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경적 증거: 시 145:9, 마 5:44, 눅 6:35-36, 행 14:16-17, 딤후 4:10, 롬 2:4, 겔 33:11, 겔 18:23.

2. 두 번째 요점: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있어 죄에 대한 억제를 다루는 두 번째 요점과 관련하여 총회는 성경과 신앙고백서에 의하여 죄에 대한 억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반적인 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함 없이 죄의 무제한적 발발을 억제한다고 가르치는 성경과 네덜란드 고백서 13조와 36조로부터 명백하다... 성경적 증거: 시 81:11-12, 창 6:3, 행

7:42, 롬 1:24, 롬 1:26, 살후 2:6-7.

3. 세 번째 요점: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시민적 선에 대한 물음을 다루는 세 번째 요점과 관련하여, 총회는 성경과 신앙고백서에 따라 비록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구원하는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 시민적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 없이 시민적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고 가르치는 성경과 도르트 신조 III-IV:4와 네덜란드 고백서 36조로부터 명백하다... 성경적 증거: 대하 10:29-30, 대하 12:2;14:3, 눅 6:33, 롬 2:14. (Protestant Reformed Churches in America, 2018).

이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하면, 일반은총을 통해 택한 자들 뿐 만 아니라 일반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존재하며, 성령을 통하여 죄를 억제함으로 인간의 사회가 유지되며, 시민적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일반은총의 성경적 증거

일반은총의 성경적 증거는 토대적 구절들과 예시적 구절들로 나눌 수 있다(송인규, 2007). 첫 번째, 토대적 구절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나타내는 구절들로서 일반은총 교리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나타내는 구절들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시 145:9)”,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겔 18:23)”,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롬 2:4)” 등의 구절을 들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택의 분여에 대한 구절들로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창 39:5),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시 145:15-16),”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마 5:45)” 등이다. 두 번째, 예시적 구절들은 일반은총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간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으나 즉각 시행되지 않는 것(예: 사 48:9), 죄의 지나친 파괴력을 억제하는 것(예: 창 4:15), 예술과 과학의 성과가 드러나는 것(예: 창 4:20-22),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시민적인 의를 해하거나 자연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예: 마 5:46-47), 모든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이 베푸는 복을 누리는 것(예: 시 65:9-10)이다.

4) 일반은총과 특별은총과의 관계

Kuypers(2015)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은 그 근거에서부터 시작하여 내용과 범위와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차이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특별은총은 그 근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궁극적으로 죄를 제거하고 죄의 결과 또한 소멸시킨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국한되며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그러나 일반은총은 단지 죄의 파괴적인 힘을 억제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목적이며,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은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특별은총의 빛에 의해서 진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Berkhof, 1932). Velema(Daallen, 2012 재인용)는 일반은총은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자들에게 일반은총의 복들을 제공함으로 특별은총을 섬기게 되며, 특별은총은 믿는 자들이 일반은총을 최대한 누리게 함으로써 일반은총을 간접적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최홍석(2004:17,23)은 Bavinck(1979)가 가인과 셋의 자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제각기의 줄기를 따라 흘러나온다”고 한 부분에 대한 논평으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보기보다는 “양자가 서로 구별되나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의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역사하였으나 동일하게 셋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호의는 베풀어졌으며 오히려 셋의 자손들에게는 일반은총의 호의에 덧붙여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Kuyper(1998a)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활동하는 영역이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즉, 특별은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오직 일반은총만의 영역, 오직 특별은총만으로 만들어진 제도권의 교회 영역, 특별은총의 빛을 받은 일부 일반은총의 영역으로서 신자들에 의해 변화되는 일부의 세상, 그리고 일반은총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인 특별은총 영역이 있다고 한다. Kuyper(1998a:200)는 이 중 네 번째 영역이야말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완성되는 최상위 영역이라고 하였는데, 즉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곳, 예를 들어 예수를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자기 삶의 반경에서 일반 은총의 삶으로 하여금 신적 계시의 원래 지배를 받도록 만든 곳”이라고 하였다. 이 모습은 마치 성령 충만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학자가 심리학에서 얻어진 유익한 정보들을 성경의 계시와 배치되지 않는지 연구 조사하며 그 지식을 신학 영역에 통합시키는 작업

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보는 듯하다. 따라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일반은총의 기초에 근거하여 특별은총의 도움을 받아 완성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로서의 일반은총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록함과 지혜를 부여받았다고 고백한다(Kuyper, 1998b). 또한, Calvin은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들 안에 이성과 이해력을 심어주었으며 이것이 자연 세계에 주어지는 보편적인 선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역사와는 상관 없이 모든 인간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연적 선물을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였다(Calvin, 1960). Calvi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세상의 사상가들의 작품이 신앙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락하고 부패함이 틀림없지만, 그래도 그렇게도 칭찬할 만한 진리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인간 이성의 영역도 하나님의 탁월한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영을 망령되게 하지 않으려면 진리 자체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에 단순히 세속적이라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고린도전서 2:14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natural man)”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세상을 탐구하는데 있어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 비록 참된 선이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은총을 남겨두셨는지 그들의 과업을 통해 배워야 한다(Calvin, 1960:273-275).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를 확립하려는 논의에 있어서 위와 같은 Calvin의 주장은 매우 가치가 있다. 구원과는 상관없이 전 인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심리학의 분야에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세상에서의 심리학적 연구를 단지 그것이 세속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저들의 뛰어난 업적이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한다는 도전은 직접적으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작업을 격려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ouw(2012:70,71)는 카이퍼의 일반은총에 있어서 내적인 작용과 외적인 작용이 구분된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Kuiper가 말하는 외적인 작용은 “과학 지식의 진보와 예술의 번영과 같은 모든 종류의 가시적 성과들을 말한다.” 즉, 일반은총을 통하여 세상의 학문과 예술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반은총의 내적인 작용은 인간의 “사회적인 미덕, 내면적인 양심, 자연스러운 사랑, 인간성의 실현, 공공 의식의 성장, 신실함, 사람들 간의 신뢰, 경건한 삶을 위한 갈망 등 인간의 내면적 삶”을 말한다. Mouw는 이러한 내적인 작용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루어 놓은 훌륭한 업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인격이 성숙하도록 돕는 일로 나타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일하시는 내적인 작용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관점으로 볼 때 성령이 일하시는 내적인 작용은 통합의 의미에 있어서 실제적 통합(김용태, 2006)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그 대상이 반드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독교 상담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

이다. 또한, 더 나아가 세속적 심리치료에서 개발된 여러 기법들을 기독교 상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일반 은총의 외적인 작용이므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며,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의지할 때 기독교인 내담자들에게도 세속적 심리학에서 발견된 다양한 기법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확신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Bavinck(1979)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신학교 총장 인수식 때 일반은총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최홍석, 2004), 그 강연 중 일반은총 교리의 현대적 의의를 밝히는 마지막 부분에서 기독교의 예술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는 예술과 과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기는 하지만 자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르며 교회와 나란히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다시 회생시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으나 예술이나 과학 자체는 죄가 있거나 불결한 것은 아님을 또한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서 Bavinck(1979)는 지금의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있어서 주의 깊게 일반은총을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집중적으로 제시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등을 돌리는 예술은 그 이념을 상실하여 현실주의로 넘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 학문은 불가지론으로 끝맺으며 처음부터 사물의 본질과 그 목적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계속 남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재창조와 창조는 약간 다르다. 예술과 과학은 그들의 원리가 중생이나 회개와 같은 특별한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총에 따라서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자연적 은사들과 여러 재능에 달렸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언제나 이방인의 예술과 학문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고, 신학자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에 관한 고전적 교육에 열의를 다했다. 그들은 이러한 연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둡지는 아니했고, 따라서 이러한

일반학문이 기독교적 인도 아래 이루어지기를 사모했다. 그러나 그들(기독교 신학자들은) 예술과 학문의 권리와 독립성을 주장하였고 단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양자의 성결을 요구하였다. ...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 가운데 교육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집을 단장하였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 히랍의 도움을 받았다. 다니엘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의 교육을 받았다. ... 심지어 신학은 보통 은혜의 은사 밖에서 학문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 신학은 물론 제학간중(諸學間中)에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원리와 대상과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은 오직 특별은총에 의존한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자의식이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어 계시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특별은총 만으로는 학술적인 의미에서 오늘날의 신학에까지 성장치 못했을 것이다. 일반은사와 특별은사가 함께 손을 잡을 때 기독교회 안에 신학이 일어났다. 따라서 신학은 다른 학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리를 충분히 시인한다. 신학의 영광은 모든 학문의 여왕으로서 왕위에 높이 앉아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있지 않고 그것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데 있다(Bavinck, 1979:76-78).

Bavinck(1979)는 기독교 신학이 언제나 세속 학문과 예술에 도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특별은총과 함께 일반은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일반 은사가 없었더라면 신학이라는 학문의 존재마저 불확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노력에 있어서 일반은총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Kuyper는 성령에 의하여 내적인 조명을 받은 자, 즉 중생한 자들, 특별은총을 받은 자들만이 사물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으며 중생이라는 특별은총이 인간의 학문을 고차원으로 이

끌 수 있다고 하였다(주만성, 2005 재인용). 그것은 왜냐하면 죄로 인한 우리의 인지적 능력이 타락하여, “사물의 진정한 맥락, 온전한 통일성, 체계적 합일성”(Kuyper, 1998b:449)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작업은 체계적이고 온전한 통일성을 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Kuyper의 의견을 따르게 되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특별은총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며 따라서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중생한 그리스도인 학자의 사명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Kuyper(1998b)는 더 나아가서 학문을 저차원적인 것과 고차원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저차원적인 학문은 관찰에 의한 데이터를 통한 연구들로서 죄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학문을 말하며 고차원적인 학문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는 학문으로써 죄의 영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학문을 말한다. 그는 일반은총이 고차원적인 학문을 발전시켰던 많은 천재와 재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활발하게 작용해왔지만, 오직 특별계시만이 사물의 근본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빛을 비춰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포함하는 고차원적인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은총의 범주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Kuyper의 논조를 따라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생각해 보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작업은 이제까지 논의했던 일반은총을 토대로 특별은총에 의해 중생을 얻은 사람이 특별계시의 조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해야 할 것이다.

III. 닫는 글

지금까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간략히 살펴 보며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이바지한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그들의 통합 작업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Collins, Carter와 Narramore, Passantino와 Passantino, 그리고 Guy는 공통적으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면서 신학적 진리와 심리학적 진리는 통일성을 이룬다고 본다. 즉, 하나님 자체가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얻은 진리들도 하나님의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또한,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 말씀 이외의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방법인 일반계시에서 찾았다.

그러나, 일부 성경적 상담학을 추구하는 학자들과 몇몇 통합주의자 및 신학자들은 이제까지 예를 들었던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주도해 왔던 주요 학자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것은 이들이 통합의 토대로 제시하였던 일반계시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반증하였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계시의 목적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그것을 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셔서 후에 심판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는 변명을 무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Thomas는 일반계시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일반계시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추구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심리학 연구가 일반계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의 모순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계시를 신학과 심리학 통합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반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대안을 일반계시가 아닌 일반은총의 교리에서 찾아보았으며 특히 일반은총

교리의 주창자들이었던 Calvin과 Bavinck 그리고 Kuyper 등의 진술에 의존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반은총은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일단 성경에 직접적으로 일반은총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 성경 구절들에서 일반은총 교리의 토대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일반은총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나타내주는 직접적 말씀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 성경적인 증거가 충분함을 살펴보았다. 그 후에 Calvin, Mouw, Bavinck, Kuyper가 진술한 일반은총 교리가 성령의 역사로서 택한 자들이나 비택자들이나 같이 심리학과 같은 일반 학문에서 진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살펴봄으로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있어 일반은총 교리가 일반계시를 그 근거로 사용하는데 따른 부적합함을 대체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체계적이고 온전한 통일성을 추구해야 하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같은 고도의 학문을 위해서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은총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Kuyper가 지적한 대로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고차원적인 학문의 경우에는 특별계시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함을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일반은총에 의하여 가능해진 신학과 심리학 연구들을 특별은총에 의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계시의 조명을 받아 그 내용을 말씀 계시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통전적인 통합을 이루어 가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배경, 내용 그리고 모델들*. 서울: 학지사
- 박태현 (2014).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소고. *개혁논총*, 31, 159-185.
- 최홍석 (2004). Hermann Bavinck의 일반은총론에 대한 신학적 재조명-성경적 근거 제시와 관련하여. *신학지남*, 279, 7-43.
- 송인규 (2007). 일반은총-개혁파 신학 내에서의 상이한 견해들 (I). *신학정론*, 25(1), 117-167.
- 주만성 (2005). A. Kuyper의 일반은총론에 근거한 기독교 문화의 전망. *진리논단*, 10, 123-139.
- Bavinck, H. (1979). *일반은총론*(차영배 역, *REDE bij de overdracht van het rectoraat aan de theologische school te Kampen*).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원전 1894 출간)
- Berkhof, L. (1932).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 Bookman, D. (1994). The scriptures and biblical counseling. In MacArthur, J. F. Jr. & Mack, W. A. (Eds.).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A Basic Guide to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Counseling* (pp. 63-97). Dallas, TX: Word.
- Calvin, J. (1960).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F. L. Battles, Trans.).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 Carter, J. & Narramore, B. (1979).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An introduction* (Rosemead psychology series). Grand Rapids, MI: Zondervan.
- Collins, G. (2007).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3rd ed. Nashville, TN: Thomas Nelson.
- Collins, G. & Malony, H. (1992).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전망*(이종일 역,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서울: 솔로몬. (원전 1981 출판).
- Daalen, L, K. (2012). The Holy Spirit, common grace, and secular psychotherapy.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40, 229-239.
- Erickson, M. (1995). *복음주의 조직신학: 서론. 신론* (신경수 역, *Christian*

- theology*).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원전 1933 출판).
- Guy, J. D. (2007). The search for truth in the task of integration. In D. H. Stevenson, B. E. Eck, & P. C. Hill (Eds.), *Psychology & Christianity integration: Seminal works that shaped the movement* (pp. 38–41). Batavia, IL: 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 Johnson, E. L. (2012).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 (김찬영 역,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2nd Ed.).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10 출판).
- Kuiper, H. (1928). *Calvin on common grace*. Grand Rapids, MI: Smitter.
- Kuyper, A. (1998a). Common grace. In J.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pp. 165–204). Grand Rapids, MI: Eerdmann Publishing Company.
- Kuyper, A. (1998b). Common grace in science. In J.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pp. 441–460). Grand Rapids, MI: Eerdmann Publishing Company.
- Kuyper, A. (2015).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N. D. Kloosterman & E. M. van der Mass, Trans.). Bellingham, WA: Lexham Press. (원전 1902–1905 출판)
- McMinn, M. & Campbell, C. (2007). *Integrative psychotherapy: Toward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oac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Mouw, R. J. (2012). 문화와 일반은총 (권혁민 역, *He shines in all that's fair: Culture and common grace*). 서울: 새물결플러스. (원전 2001 출판).
- Passantino, B. & Passantino, G. (2009). Psychology and the church (part two). *Christian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September 25, 2018, from <http://www.equip.org/article/psychology-and-the-church-part-two/>
- Protestant Reformed Churches in America (2018). The Three Points of Common Grace (CRC–1924). Retrieved September 28, 2018 from <http://www.prca.org/resources/publications/articles/item/291-the-three-points-of-common-grace>.
- Stephens, S. (n.d.). The history of christian counseling and general revelation: The misuse of a biblical doctrine. Association of Certified Biblical Counselors. Retrieved September 26, 2018, from <https://biblical>

counseling.com/resources/acbc-essays/history-christian-counseling-general-revelation/

Thomas, R. L. (1998). General revelation and biblical hermeneutics. *The Master's Seminary Journal* 9, 1, 5–23.

Vande Kemp, H. (1996). Historical Perspective: Religion and clinical psychology in America. In E. P. Shafranske (Ed.). *Religion and the clinical practice of psychology* (pp. 71–1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bstract 】

A Study of Common Grace as the Foundation for
Integrating Theology and Psychology

Kim, Kyoungjun

World Missi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as a ground of the integration of Theology and Psychology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general revelation. Historically, several scholars have presented general revelation as a foundation for integration on the basis of the old saying, “truth is God’s truth.” The claim that psychological research, which is a realm of general revelation, can achieve unity with God’s truth was disputed by arguing that the purpose of general revelation is to reveal the existence of God through the created world and to prevent people from excusing that they did not know God. In addition, the attempt to include the findings of other sciences into general revelation was negated by the analysis of hermeneutics for general revelation. God gives common grace to human beings by bestowing them with reason and understanding despite of the Fall through the Holy Spirit. Also, this paper presented the fitness of common grace as a found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ology and Psychology by examining the statements of Calvin, Bavinck, and Kuyper who argued that Theology develops by the help of common grace and it can gain benefit through the psychological research.

Key words: integration of theology and psychology, common grace, special grace, general revelation, all truth is God’s truth